

조선 15~17세기 수륙재(水陸齋)에 대한 유신(儒臣)의 기록과 시각 매체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Corresponding Author : shine22@korea.kr

국문초록

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에게 불교 의례는 이른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도왔고,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의례 공간에는 도량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양구와 기물이 장엄되고 범음구와 범패가 어우러졌다.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닌 시각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생사의 인과응보를 담은 <시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마련된 도량에 불화를 헌과하고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관청(觀聽)'에 대한 수요로 불화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 의례 장면을 담은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친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화에서 이 도상은 수륙재에 봉청(奉請)하는 존귀한 대상 중 한 그룹이었으나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재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된다. 왕실 후원은 불교 의례에 대한 사회적 공인과 같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의례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경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이 참여하는 의례 공간에 승속(僧俗), 남녀, 신분의 귀천(貴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예의가 무너지고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금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축제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촉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실록(實錄)의 기록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불화를 그린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도성이 텅 비도록 군중들이 모여든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됐음을 반증한다.

불교 의례는 생의 순환 단계에서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도해되고 의례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던 불교 의식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마련되어 일상의 고단함을 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던 불교 의례가 정례적인 세시풍속이자 공동체의 축제로 수용되는 과정을 불교 회화에 재현된 시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불교 의례(佛敎儀禮), 축제(祝祭), 수륙재(水陸齋), 시왕도(十王圖), 감로도(甘露圖)

투고일자 2019. 12. 31 ● 심사일자 2020. 01. 21 ● 게재확정일자 2020. 02. 10





I.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축제(祝祭)’라는 용어만큼 생활 속에 스며든 단어도 없다.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축제는 때로는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지역 행사의 부정적 의미로 퇴색되어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느새 ‘문화생활’의 동의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의 종교적 의미를 논하는 것은 다소 엉뚱하게 생각된다.

축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경축할 만한 일을 기뻐하고 축원한다는 의미와 천신(天神)이나 신령(神靈)에게 올리는 제사(祭祀)라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¹ 전통 사회에서 축제는 성스러운 존재와 접촉하고 세속의 의사를 전달하며 소통하는 수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5~17세기의 수륙재에 대한 위정자(爲政者)의 기록을 중심으로 불교 의례에 사용된 시각 매체와 기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유신의 문집(文集)에서 불교 의례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 죽음과 같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지만, 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은 다수의 사람을 모여들게 하는 불교 의례의 결집력을 우려했다.³

조선 전기의 기록에서 보이는 불교 의례에 대한 경

고는 앞선 왕조의 핵심 사상이었던 불교를 혁파하고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본고(本稿)에서 의식 수혜자나 동참자의 관점보다 위정자의 기록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생들의 두려움이 불교 의례의 본질적인 특징인 연극적 요소와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 즉 축제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례 장소에는 현실의 공간을 특별한 도량(道場)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물과 장엄구가 배치되고, 초월적인 존재를 그린 그림이 걸렸다. 의식을 집전하는 승려는 금강저와 금강령을 지니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종, 바라, 쟁과 같은 범음구(梵音具)가 연주되며 작법무(作法舞)가 행해졌다. 의례는 시공간의 예술이기에 시간이 흐르면 끝이 나고 축제와 같은 결집도 사라진다. 그러나 의식집에 수록된 의식 절차와 사용된 기물을 통해 의례의 광경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조선 전기의 불교 의례가 위험한 축제였다면, 17세기 이후 시각화된 불교 의례는 축제의 장이었다. 왕조의 변화, 전쟁,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와 갑작스런 죽음을 겪은 공동체는 의례에 동참함으로써 다시 결집할 수 있었다. 불교 축제의 한 형식인 의례에서 사용된 매체의 성격과 기능에 주목하여 의례와 미술의 관련성을 다루고자 한다.

1 축제란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을 기념해 의식을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축제를 뜻하는 ‘festival’은 그 어원에서부터 제의와 종교 의례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닌다. 종교적 기원으로써의 축제는 강력한 사회 통합력을 지니며 성스러운 존재와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축제의 속성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 즉 祭儀로서의 성격과 금기의 위반이라는 측면이 있다.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2 본 논문은 2018년 4월 28일 “미술과 축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명희, 『조선시대 불교 의례와 그 시각적 재현』, 『미술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3 조선시대 불교 의례에 대한 경계는 새 왕조 출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전 시기와 분명히 차별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대표적인 고려의 불교 의례인 팔관회, 연등회 등은 단순히 불교 의례가 아니었으며 산천, 제신에 대한 신앙을 비롯해 여러 믿음이 허용되었고, 공동체의 통합이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였다. 고려의 불교 의식에 관해서는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 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 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27(2003), pp.29-57; 김수연, 「고려시대 佛頂道場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II. 조선 전기 수륙재의 기록

1. 위험한 축제, 해괴한 그림

1432년 한강 천변(川邊)에서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주도에 의한 대형 수륙재(水陸齋)가 7일간 개최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당시의 수륙재는 16세기까지도 불교의 폐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었다(표 1). 수륙재는 태조 4년(1395)부터 고려 왕씨(王氏)와 조선 개국의 과정에서 희생된 전몰장병을 위해 국행 수륙재로 치뤄졌다.⁴ 태조가 왕명으로 조관(朝官)을 파견해 향과 소문(疏文)을 내리고 수륙재를 봄과 겨울에 개최하는 정기 의례로 삼은 점은 이후 국가 의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5,6}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교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수륙재에 대한 반발과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실록과 상소에 보이는 수륙재 관련 기록은 의례를 마련한 재자(齋者)나 의식을 집전한 승려가 작성한 의식 소문(疏文)과는 큰 차



그림 1 1432년의 한강 수륙재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표 1 1432년 한강 수륙재의 기록

내용	
A	<p>효령대군 이보가 성대하게 수륙재를 7일 동안 한강에서 개설하였다. 임금이 향을 내려 주고, 삼단(三壇)을 쌓아 중 1천여 명에게 음식 대접을 하며 모두 보시를 주고, 길가는 행인에게 이르기까지 음식을 대접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날마다 백미(白米) 두어 섬을 강물 속에 던져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베풀었다. 나부끼는 깃발과 일산이 강(江)을 덮으며,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니, 서울 안의 선비와 부녀(婦女)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양반의 부녀도 또한 더러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가지고 와서 공양하였다. 중의 풍속에는 남녀(男女)가 뒤섞여서 구별이 없었다. 전 판관(判官) 길사순(吉師舜)이 글을 올려 중지하라고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⁶</p> <p style="text-align: right;">- 세종 14년(1432) 2월 14일</p>
B	<p>임자년 봄에 크게 무차지회(無遮之會)를 열었사온데, 중들이 구름같이 모이어서 한강 가에서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극히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차려서 기치(幡旗)와 일산(蓋)이 해를 가리우고, 종(鍾)과 북소리를 땅을 흔들었습니다. 천당과 지옥(地獄)의 고락을 그림 그리고, 사생과 화복(禍福)의 응보를 보여 주니, 이에 귀천(貴賤)과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모두가 관청(觀聽)하고자 모여 드니, 도시는 이 때문에 텅 비고 관진(關津)은 이 때문에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물을 허비한 것을 보면,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흠과 모래같이 흩어 버렸습니다.</p> <p>쌀을 배에 잔뜩 싣고 나가 강물에 던져 버렸으니, 하늘이 낸 물건을 마구 천대함이라, 저 푸른 하늘에 지은 죄로써 말씀 하시면 말이 너무 길어 이루 다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정욕(情慾)의 감정은 남녀보다 더 심함이 없거늘, 또한 도량(道場)에서 여러 날을 유숙하여, 옷깃을 이어 장막(帷)이 되고, 흐르는 땀을 뿌려 비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는 수륙재(水陸齋)의 모임이라 하였으나 속으로는 더러운 행위를 이루어, 드디어는 이남(二南)의 강한(江漢)으로 이남의 풍화를 보지 못하였으니, 탄식함을 이루 이길 수 있겠나이까...⁷</p> <p style="text-align: right;">- 세종 16년(1434) 4월 11일</p>

이가 있다. 불교 의례에 대한 공식 기록에서의 인식은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는 사치와 민심을 미혹하게 하는 폐단이 주된 논지였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의 연고존친(年高尊親)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다. 불교를 깊이 숭상하여 사찰을 중건하고, 불경을 번역하거나, 불상과 불화, 범종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불사를 후원했다. 왕실 중친이라는 신분으로 불교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나 조정의 유신들로부터는 강한 비

4 강호선, 「고려시대 국가 의례로서의 불교 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2015); 심호섭,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동국사학』 40(2004), pp.219~246; 한상길, 「조선 전기 수륙재 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23(2009), pp.671~710.

5 강호선, 「조선 전기 국가 의례 정비와 국행 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2017), pp.485~516. p.494. 국행 수륙재에는 내유사, 내자시, 내섬시, 사옹원, 인수부, 인순부, 예빈시 등과 같은 관리가 파견되었다.

6 “孝寧大君補大設水陸于漢江七日, 上降香, 築三壇, 飯僧千餘, 皆給布施, 以至行路之人, 無不饋之. 日沈米數石于江中, 以施魚鱉. 幡蓋跨江, 鍾鼓喧天. 京都市女雲集, 兩班婦女, 亦或備珍饈以供, 僧俗男女, 混雜無別. 前判官吉師舜上書諫之, 不允.”(『世宗實錄』 55권, 世宗 14년(1432) 2월 14일).

7 “歲在壬子之春 大設無遮之會 僧徒雲合 濱於漢水 經日浹旬 窮奢極侈 幡蓋蔽日 鍾鼓動地 天堂地獄之苦樂 示死生禍福之報應 於是無論貴賤男女 率皆企登觀聽 都市爲之一空 關津爲之不通.”(『世宗實錄』 64卷 (世宗 16년(1434년 4월 11일 戊午)).



판을 받았다.⁸

효령대군이 개최한 수륙재는 16세기 명종대 수륙재가 폐지될 때까지도 회자되었다(그림 1). 수륙재에 세종은 친히 향을 내렸고 천 여 명의 승려에게 반승(飯僧)을 베풀 정도로 참여한 인원의 수와 사용된 물품은 국가 행사에 버금갈 정도였다. 임금의 하사한 물품은 의례에 큰 권위를 부여했기에 이 점은 두고두고 유신의 지적을 받았다.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며 민심을 미혹하게 한다며 의례 폐지론이 높아진 시기, 양반부터 천민까지 귀속에 상관없이 공양물을 들고 모여 들었고 선비와 부녀들이 구름 같이 모여 남녀가 뒤섞여 구분할 수 없었다. 의례에 동참한 사람들의 공양물은 단(壇)에 진설되었으며, 이후에는 사찰 운영의 재정적 기반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나부끼는 것발과 일산이 강을 덮고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을 뒤흔들 만큼 의례에는 범패가 반드시 필요했다.

석가모니불의 설법 회상을 담은 <영산회상도>의 불단(佛壇)에는 향, 향합, 진귀한 공양물이 놓인 불탁(佛卓)이 도해된다. 실제 의례에서도 공양물을 차려놓은 시식단(施食壇)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존귀한 존재를 칭해 법식을 올리고, 불행한 죽음과 영혼을 위해 음식을 베푸는 '시식(施食)' 절차는 의례의 종류와 상관없이 핵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의식 장면을 포착한 불화에도 성대한 시식단이 강조되었다(그림 2). 조선시대 불화의 특징적인 장르인 <감로도>에서도 영혼을 위로하는 가장 큰 시각적 장치는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이다.⁹

수륙재가 열리는 공간에는 각종 것발이 휘날리고 장대 끝에 용두(龍頭) 모양을 만든 '당(幢)', 존귀한 존재를 나타내는 자리나 불좌(佛座)에 사용되어 불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하는 '개(蓋)' 등의 위의를구가 사용되었다



그림 2 <감로도>, 조선 16세기, 129*123.6cm, 일본 光明寺 소장.



사진 1 위의기(幢, 蓋), 동화사성보박물관소장.

(사진 1).

이러한 의식구와 더불어 그림과 같은 시각 매체는 도량을 장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수륙재에 걸린 불화의 종류와 헌배 방식에 관한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옥의 고탕(苦樂), 생사의 재앙과 복[生死禍福], 선악의 되값음 되는 그림을 보고 듣기 위해 남녀와 귀천(貴賤)이 모여들었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8 1435년 회암사 중수를 건의했고, 1464년(세조 10) 圓覺寺를 창건하게 되자 造成都監의 提調가 되어 役事를 친히 감독했고, 『圓覺經』을 國譯하도록 했다. 40여 건에 달하는 효령대군의 불사 기록은 다음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김정희,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教美術·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의 佛事』, 『미술사논단』 25(2007.12), pp.107~150.

9 김승희, 「감로도에 보이는 공양물의 내용과 그 의미: 보석사 감로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27(2013.8), pp.289~319. 지역의 특산물도 도해되어 기록화로서의 성격이 보여주거나 동일 계절에 수확할 수 없는 것들이 한 시식단에 올려진 관념적인 형태로 도해된 경우도 있다. 18세기 감로도에서는 드물게 시식단이 생략된 유형도 있으나, 대부분에서 의례를 위한 시식단은 강조되어 표현된다.

불화의 주제는 불교의 내세관을 담고 있는 지옥도 계통의 불화였다. 특히 불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보고 듣는다’는 관청(觀聽)이란 용어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림이 불교의 교설을 설명하고 의례의 진행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의례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고 ‘강설(講說)’을 듣는 것이 중요한 절차로 포함되었다.

신분, 남녀, 승속의 차이 없이 다수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에서 각종 기물과 불화는 위정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했다. 종, 북소리가 나무에 가득했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의례에는 범패와 불교 음악이 반드시 필요했다. 1606년 창의문 바깥에서 거행한 또 다른 수륙재에서도 구체적인 설비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신이 사실(私室)에 있다가 마침 창의문 밖에서 수륙회를 크게 베푸는데 도성의 남녀들이 철시하고 달려간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즉시 부리(府吏) 4명과 소유(所由) 3명을 불러 보내어, 여러 승속(僧俗)들을 체포하고 설치한 기물(器物)들을 압수하여 오게 하였습다. 그리하여 화주(化主) 1명, 시주(施主) 6명, 법승(法僧) 4명을 체포하고 황옥교(黃屋橋)·납교의(鑢交椅)·기선(旗扇) 등의 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각종 기물들을 살펴보니 너무도 해괴하였으므로 동료들과 상의하여 즉시 소각시켰고, 잡아온 사람들은 형추하여 수금(囚禁)한 다음 수도기(囚徒記)를 입계(入啓)한 것입니다. 단 승도(僧徒)와 거사(居士)들이 음사(淫祀)를 베풀어 대중을 미혹시키는 폐단이 근래 더욱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의거 진달하여 그 조짐을 막으려 했고, 또 한 성부와 수문장(守門將)이 능동적으로 금지시키지 못한 죄를 지금 동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승인들을 출입하게 만들었으니 사녀(士女)들을 광혹(狂惑)시킨 잘못이 실로

신에게 있습니다.”¹⁰

- 1606년(선조 39) 5월 28일

조선 전기 수륙재는 한강과 같은 천변 뿐 아니라 도성 바깥에서도 개최되었다. 창의문 바깥에서 개최된 수륙재는 성황을 이루어 도성 안 사녀(士女)들이 길을 메우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승려들의 도성 출입 금지 조치를 지키지 못한 관리와 의례를 열어 어리석은 백성을 피고 사녀를 광혹시킨 승속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창의문 바깥에서 수륙 대회를 베푼 10여 명이 감금되고, 화주와 시주, 법승이 체포되었다.¹¹

불교에 대한 정책적 탄압에도 도성 내 다수가 운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교 의례가 열렸던 것이다. 의례를 위한 장비와 불화가 사찰로 부터 의식단이 설치된 곳에 옮겨졌다. 압수된 기물로는 황옥교와 납교의, 기선이 있었다. 당시의 창의문 수륙재를 비판한 다른 기사에서는 황옥(黃屋)·용기(龍旗) 등을 압수했다고 하였다. 황옥교는 황제가 타는 가마이며, 납교의는 이동하여 가지고 다니는 의자를 말한다. 기선이나 용기, 이동식 가마는 왕실 행사에 사용되는 위외구의 일종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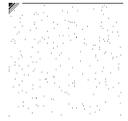


그림 3 영좌교의, 1674년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국행 수륙재나 왕실 불교 의례의 전통 때문인 탓도

10 “前月二十八日, 臣在私室, 適聞彰義門外, 大設水陸之會, 都中男女, 撤市奔波, 臣不勝(驚)駭, 駭, 卽招府吏四名, 所由三名發送, 頭頭僧俗及表表器物, 使之并爲捉來, 則捉得化主一名, 施主六名, 法僧四名及黃屋輜, 鑢交椅, 旗扇等物而來. 觀其各樣器物, 極其怪悖, 與同僚相議, 卽行焚燒, 所捉各人, 刑推囚禁, 至於囚徒入啓而但僧徒, 居士, 淫祀惑衆之弊, 比來益甚, 故欲據此陳達(선조 39년 6월 2일).

11 化主는 불사가 있을 때 참여할 인물을 모으고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승려이며, 法僧은 의식 절차를 진행하며 의식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施主는 재정 지원으로 의식에 동참한 인물로 승려와 일반 대중, 신분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시주라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있지만, 국장 절차에 활용되는 소신, 소개, 가마처럼 궁중 의례용 기물이 수륙재에 사용되었다. 불교 교단에서 의도적으로 왕실의 권위를 차용하는 점은 더욱 짙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의 기사에는 이런 기물이 사용된 의례를 해괴하다 묘사했으며, 황급히 압수하고 불태웠다고 하였다.

“승려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였으며, 조각 장식의 물건을 극도로 화려 사치하게 하여 옛날에도 보지 못하던 정도였다. 붉은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고 황금으로 가마를 꾸미고 앞뒤로 복을 치고 피리를 불어 대가(大駕)가 친히 입어하는 상황처럼 베풀었으며, 또 배위(拜位)를 마련하여 마치 상이 부처에게 배례하게 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그 흉패함은 형언할 수 없었다. 창고의 재정이 고갈되고 종실·척리도 곡식과 비단을 내어 그 일을 도왔다. 자전이 그 계율을 따라 목욕재계하고 소식하기를 수십여 일 동안 하다가 병환이 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병세가 위독하게 되자 내관을 보내어 중지하게 하였는데, 무차대회를 베풀 지 이 미 며칠이 되었다.”¹²

-1565년 4월 5일(명종실록 44권)

몇 천 명의 승려가 운집한 1565년 회암사 수륙재에 대한 비판에서도 핵심은 화려하게 조각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치스러움과 유교적 예법에 관한 것이었다. 기신재의 기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마치 임금의 친히 행차한 듯이 연출하거나, 왕이 부처에게 배례하는 도리에 어긋난 행동의 흉패함을 유신들은 참을 수 없었다. ‘너무나 해괴하다고 묘사된 각종 기물’은 기록된 이외에도 다양했을 것이다. 그 핵심을 차지하는 것 중에 불화가 있다. 사찰 경내가 아닌 곳에 어떤 그림이 걸리고,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불교의 교리와 내세관을 보여주는 불화였을 것이다.

2. 의례 공간에 걸린 <시왕도>와 강설(講說)

조정의 신하들은 의례에 사용된 그림과 시각 매체가 교단을 운영하고 신도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며 해괴한 그림을 철거할 것을 재차 상소하였다. 시각 매체의 기능과 효력에 대한 경계를 담은 글에서 역으로 그 기능과 파급력을 유추할 수 있다.

『문공가례(文公家禮)』를 따르지 않는 상제에 대한 지적은 조선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유교적 상례를 정착하려는 노력이 무색할 만큼, 고위직 가정에서도 상례와 천도재를 불교식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이다. <표 2> ㉓는 태종대 사간원에서 불도 승상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며 상소한 글이다. 주자학이 국가의 기본 강령이 되면서 『문공가례』는 관(冠)·혼(婚)·상

표 2 불화와 시각 매체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
㉓	<p>“...부처에 이바지하고 중에 재(齋) 올리는 일은 인순(因循)하여 아직 개혁하지 못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 천발(薦拔)하여 칠칠재(七七齋)를 올리고, 간혹 법석(法席)의 모임을 베풀어 빈소(빈소)에다 부처를 걸고 중을 맞이하여 도량(道場)이라 일컬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넘겨 한데 섞어서 망령되게 하늘이 낸 물건을 허비하되 일찍이 돌보아 야끼지 아니합니다. 어떤 무식한 무리는 오로지 부화(浮華)한 것을 일삼아 불공의 관비를 극도로 갖추어 남의 눈에 자랑삼아 보이니, 그것이 존망(存亡)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가령 부처가 신령이 있어서 사람이 먹이는 것을 받아 먹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벼슬을 팔고 감옥을 파는 탐관오리의 일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생사(生死)는 명(命)에 있고, 화복(禍福)은 하늘(天)에 있으니, 비록 기도함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부처가 어찌 그 사이에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또 불경에는 아직 재신(齋身)에 칠칠일(七七日)의 말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후세의 승도(僧道)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거두는 술법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특명하여 상제(喪祭)의 의식을 한결같이 『문공가례』에 따르고 불사를 엄금하게 하소서.</p> <p>-1412년(태종 12) 10월 8일</p>
㉔	<p>죽은 판부사 이화영(李和英)의 후처(後妻) 동(童)씨는 오로지 남편 집의 전민(田民)과 남편의 계모 윤씨의 전민을 써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사당(祠堂) 터에 정실(淨室)을 지어 불상(佛像)을 걸어 놓고, 그 남편과 조상의 신주는 낮고 더러운 곳에 두고는 도리어 가난하게 사는 초취처(初妻)의 아들 이안정(李安貞)으로 하여금 사당을 짓고 신주를 안치하라고 시켜서, 조상의 신주로 하여금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불효 막심 하옵니다. 또 윤씨는 은의(恩義)가 가장 중하거늘 그 신주를 이제까지 사당에 부모(附廟)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하건대,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과하고, 불당(佛堂)을 부수고 사당을 지어 예(禮)에 의하여 봉사(奉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그 죄는 용서하고, 불당을 부수지 말게 하였다.</p> <p>-1434년(세종 16) 8월 16일</p>

12 “...繼徒四集, 不知其幾千。彫飾之物, 窮極華靡, 曠古未見。且紅段爲旗, 黃金飾輦, 前後鼓吹, 設大駕親臨之狀。又設拜位, 若使上禮佛然。其爲兇悖, 不可狀言。府庫財竭, 宗室戚里, 亦各出粟帛而助之”[1565년 4월 5일 명종실록 44권].

(喪)·제(祭)의 예제(禮制)를 시행하는 지침이 되었다.

고려 말 성리학의 전래와 함께 유교의 예법서가 들어온 후 왕가와 조정 중신에서, 사대부,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예제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보급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세종대 판부사 이화영의 후처가 사당 터에 정실을 짓고 부처를 걸고 승려를 불러 의식을 행한 ⑥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식 의례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의례에 필요한 매체 중에는 너무나 해괴하여 즉시 소각시킬 수밖에 없는 불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그림이 걸렸기에 언급하기도 망측하다는 발언을 쏟아냈을까. 의식에 사용된 불화의 종류와 규모, 헌배 방식, 사찰 내부에 항상 걸려있는 불화와는 별개로 의식에만 사용하는 전용 불화가 존재했는가의 문제는 여러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불화와 강설(講說)의 방식으로 논의를 좁혀보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앞서 1432년 한강 수륙재에서도 지옥의 왕과 사후의 심판을 도해한 불화가 의식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불화는 단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앞에서 그림 풀이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16세기 <지장시왕도>를 참고할 수 있다(그림 4).¹³

일본의 지온인(知恩院) 소장 <지장시왕도>는 인종(仁宗)의 후궁이었던 숙빈 윤씨 등이 명종의 비, 인순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비구니 지명과 함께 발원하여 자수 궁정사에 봉안한 것이다.¹⁴ 상단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지옥의 시왕과 시왕을 보좌하는 관리와 옥졸을, 중앙에는 불상을 만들고 공양물을 받치며 예배 공양하는 장면을 비중 있게 도해했다. 하단은 『지장보살본원경』에 나오는 18 지옥의 모습이다.

<시왕도>는 명부전이나 시왕전과 같은 경내의 전



그림 4 (A) <지장시왕도> 1575~1577년, 견본채색, 209.5×227.3cm, 일본 지온원 소장, (B) 지옥의 형벌, <그림 4>의 세부.

각에 항상 걸려있는 불화로 생각되지만, 의례가 베풀어지는 공간에 옮겨 걸고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앞에서 이루어진 그림 풀이를 보고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도성이 텅 비었다는 한강 수륙재의 그림도 아마도 지옥의 심판을 비롯하여 불교의 내세관을 도해한 불화였을 것이다. 이에 민간의 빈소나 사찰에서 사용된 불화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표 3> ③은 의례에 사용된 불화의 사례로, 서울 외부의 사찰 의례에 <시왕도>를 사용하거나 도성 안 골목에도 <시왕도>가 설치되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진행된 우란분재에는 불화에 대한 언급이 없지

13 시왕은 명계를 다스리며 망자의 생전의 죄업을 판단한다. 시왕도에는 죽은 후 첫 번째 칠일인 초칠일의 제1 진광대왕을 시작으로, 이칠일의 초강왕, 삼칠일의 송제왕, 사칠일의 오관왕, 오칠일의 염라왕, 육칠일의 변성왕, 칠칠일의 태산왕, 백일의 평등왕, 일주기의 도시왕, 삼주기의 오도전륜대왕 등 총 열 명의 왕과 생전의 업에 따른 형벌의 집행 장면이 도해된다.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14 김정희, 「朝鮮前期의地藏菩薩圖」, 『강좌미술사』4(1992), pp.79~118; 정우택, 「朝鮮王朝時代 前期 宮廷畫風 佛畫의 研究」, 『미술사학』13(1999), pp.129~166; 백은정, 「知恩院 소장 조선 전기地藏十王18地獄圖 연구」, 『미술사학』27(2013), pp.13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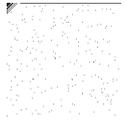


표 3 <시왕도>를 사용한 의례의 기록

	내용
㉔	<p>지금 승도들이 서울 바깥 사찰에서 '시왕도(十王圖)'라고 칭하고서, 사람 형상을 괴상한 형용과 이상한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리지 않는 바가 없사옵니다. 그 잔인하고 참혹한 형상을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후 세에 간사한 승도들이 생업을 영위하고자 불설을 가탁하여, 이 그림을 만들어 절간에 걸어 두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올려서 많은 재물을 굶어 모을 것이오니 …이 때문에 그 부모 처자를 내버리고 세상을 도피하여 머리를 깎아 강상을 허물어뜨리오니, 생민의 폐해가 실로 이 그림에서 연유됩니다. 청하건대, 서울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각 고을에서 살살이 수색하여 불태우거나 헐어버리게 하고, 그 중에 혹시 감히 숨겨 놓거나 혹은 몰래 숨어서 그림을 그리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즉시 불태워 없애고서, 법에 의하여 죄를 주게 하옵소서.”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¹⁵</p> <p>-1440년(세종 22) 1월 25일</p>
㉕	<p>나라의 풍속이 7월 15일은 절에 가서 혼(魂)을 불러 제사했는데, 이날 무례한 승도들이 도성에 들어와서 거리 골목에 기를 세우고 쟁(鎗)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하여 친구(饋具)를 늘어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백중(百種) 시식(施食)이라 이름했다. 사녀(士女)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곡식과 배를 시사(施捨)하되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고, 경사(卿士)의 집에 서도 하는 자가 있었다. …이때 장령(掌令) 민건(閔鰲)은 중들이 방울을 흔들며 영불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들은 체하고 지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비난하였다.¹⁶</p> <p>-1445년(세종 27) 7월 14일</p>
㉖	<p>근일 이래로 두세 승니(僧尼)가 머리를 땅아 늘이고 속인의 복장으로 몰래 내지(內旨)라 일컬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하며, 쌀과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재승(齋僧)을 공양하고, 당개(幢蓋)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또 시왕(十王)의 화상을 설치하여 각각 전번(錢幡)을 두며, 한 곳에 종이 1백여 속(束)을 쌓아 두었다가 법회를 실시(設施)하는 저녁에 다 태워 버리고는 '소번재(燒幡齋)'라 이름합니다. 이른바 '내지'란 궁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하께서 모르시는데 궁중이 행한다면 이는 궁중이 전하를 속이는 것이고, 궁중에서 행하는데 전하께서 금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전하께서 궁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하였다.</p> <p>-1518년(중종13) 7월 17일</p>

만, ㉕ 기와 쟁을 놓고 탁자에 각종 제기를 진설해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백중 시식을 거행했다.

또한 ㉖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1518년의 '소번재(燒幡齋)'에도 <시왕도>가 사용됐다. 소번재는 정례화된 의례의 명칭은 아니나 사후에 받아야 할 죄값을 생전에 미리 닦아 사후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생전 예수재로 판단된다. 산중 사찰에 쌀과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재승(齋僧)을 공양하고, 당개(幢蓋)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시왕의 화상(畫像)을 설치하고, 각각 전번(錢幡)을 두

며, 종이 1백여 속(束)을 쌓아두었다가 법회 날 저녁에 다 태워 버렸다는 내용은 예수재에 관한 이른 시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시왕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례가 베풀어진 공간은 다르지만, <시왕도>가 걸렸음을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다. 생사 지옥의 인과응보를 그려 민심을 어지럽혔다고 <시왕도>의 제작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가 빈번해지는 맥락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사후 심판의 개념은 인도로부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도교의 명계관 등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후 3년의 시간 동안 재판을 통해 생이 결정된다는 사고는 교단의 운영에도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

중국에서도 당대 말에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등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올리는 공덕과 의례가 수록되고, 칠칠재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의례에 소상과 대상이 더해진 십재(十齋)가 자리 잡았다. 고려시대부터 시왕재, 시왕공(十王供)을 베푸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시왕 의례는 천도 의례와 밀접한 연관을 지녔기에 천도 의례나 예수재에 <시왕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둔황에서 출토된 시왕도권(十王圖卷)을 보면 시왕을 묘사한 그림과 찬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 역시 같은 구성으로 그림을 펼쳐가면서 이미지를 함께 보고 찬문을 읽으며 해설을 듣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에도시대의 목판화에서도 <시왕도>를 보여 주며 설명이 더해지고, 이를 보고 듣는 사람은 무서운 장면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가린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어 있다(그림 5). 그림을 설명하는 이는 일본에서 고을을 다니며 불교 교설을 강설했던 구마노 비구니로, 그림풀이를 해준다는 의미의 '에도끼(絵解)' 비구니로도

15 “今僧徒乃於京外寺社，稱為十王圖，圖畫人形，至於殊形異狀，無不畫作，其殘忍慘酷之狀，目不忍見，真得其道者，必不爲此。後世奸僧欲營生業，假托佛說，乃爲此圖，張掛佛宇，恐嚇愚民，多聚資財，非徒有乖釋氏慈悲之意，愚民畏慕罪福，不顧生理，傾財失業，未免飢寒，以至棄其父母妻子，逃世剃髮，敗毀綱常，生民之害，實由於此圖。請令京中司憲府，外方各官窮搜燒毀，其或敢有藏匿，或潛隱圖畫者，許人陳告，隨即燒毀，按律抵罪。”『世宗實錄』88卷(世宗 22年(1440년 庚申)).

16 “國俗以七月十五日，就寺招魂以祠，是日無賴僧徒入都城，於街巷豎幡幢，擊錚鼓，設卓陳饌，唱死人名，號曰百種施食。士女空集，施捨粟布，惟恐不及，卿士之家，亦有爲者。上聞之，大怒，謂承政院曰：“僧徒縱恣，以至此極。予亦聞之，卿等何不以啓?”又召司憲府曰：“何不禁耶?”詰責不已。時掌令閔鰲見僧搖鈴梵唱，似若不聞而行，人多譏之。(세종 27년 7월 14일, 1445년).



그림 5 <熊野比丘尼繪解圖>
(『近世奇跡考』, 1804년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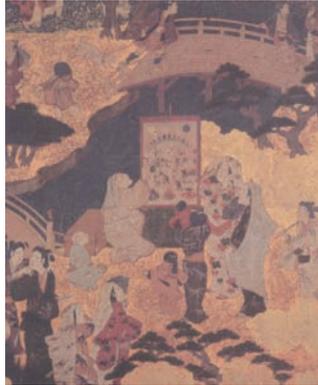


그림 6 <住吉神社祭禮圖>, 미국 Freer Gallery of Art 소장
(小栗栖健治著, 『地獄絵の世界』).



그림 7 <熊野觀心十界圖>, 일본 호고현립역사박물관.

불렸다. 다리가 있는 길가에서 불화를 걸고 설명을 하며, 이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도해된다(그림 6). 사람들이 보는 그림은 불교의 내세관을 그린 <구마노관심십계도(熊野觀心十界圖)>로, 중앙에는 아귀를 위한 시식단이 있고 상단에는 인간의 유년에서 노년까지의 일생을 매화·벚꽃·소나무·단풍·설경 등 나무와 사계절의 변화에 담고 있다(그림 7). 시식단의 좌측에는 염라왕의 심판이 있으며 미혹한 세계인 육도와, 깨달음의 네 가지 세계를 함께 총

십계가 도해되고 하단은 지옥의 심판이다. 아귀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시식을 베푸는 도상은 중국에서도 제작되었다(그림 8). 수록화 중 한 폭에는 굶주린 영혼을 상징하는 아귀를 위해 수북하게 쌓아올린 시식단을 중심으로 지옥의 심판과 구제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그림 8 <焰口餓鬼圖>, 중국 명대, 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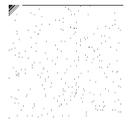
개인적 공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불화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방식은 고대로부터 있었다. 그림의 형태가 권축본이든, 족자형이든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고 이를 구술로 설명해주는 내레이터가 있다는 점, 시왕도의 활용이란 측면은 동일했다.¹⁷ 한편 조선시대 회화사적으로 볼 때 조금 다른 차원의 장르가 생겨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감로도>라는 독립된 주제의 탄생이다.

Ⅲ. 불교 의례의 시각화, <감로도>

1. <감로도>의 왕실 인물 도상과 그 의미

호불 군주와 왕후, 종친 등의 불교 후원은 유교 국가

17 불교의 교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화와 강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서 이루어졌다. 부모은중경 등의 주제 역시 대표적이다. 박도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의 圖像 형성과정: 불교경전 形象化의 한 패러다임』, 『미술사학보』 23(2004), pp.111~154; 박도화, 『의미와 유형으로 본 '變相'의 分化』, 『미술사학연구』 277(2013), pp.41~67.



의 설립 이념을 내재화하려는 사대부, 유신과 갈등을 빚었다. 왕실의 불교 의례 시행은 그 파급력이 컸기에 유교의 가치관을 정립시키려는 입장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불교 의례 공간과 의례에 사용된 매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과 억제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차적 측면 이외에 좀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불교 의례에 대한 위정자들의 경계가 의례의 축제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축제는 일상으로부터의 이탈, 금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요소가 있다. 이는 불교의 내세관으로 대중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상적 측면에 비해 보다 근원적이다. 의식이 베풀어지는 곳의 의외성, 일상의 비일상화라는 측면으로 의례를 강력히 엄단하고자 했다. 일정한 절차와 내용을 수행함으로써 화해와 결집, 통합이 이루어졌다.

유신들은 의례 공간에서 승속, 남녀, 신분의 귀천이 없이 함께 어우러지며 예의가 무너지고 풍속과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교 의례는 인간의 생의 순환 단계와 관련되며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다. 조선 후기 두 차례의 전란을 겪은 이후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의례의 장면을 도해한 <감로도>에는 실록의 기록에서 그토록 비난을 받았던 공양물을 가득 쌓아 올린 성대한 단이 도해되어 있다. 의례 절차에서 공양물을 감로로 변화시켜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시식(施食)'이라는 항목으로 중요하게 다뤄졌고, 불화에 있어서도 화면의 중심을 이룬다. 굶주린 아귀에게 시식을 올리는 장면, 수륙재가 베풀어지는 곳에 청해지는 삼계제천과 역대 인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영혼에 대한 묘사와 같은 <감

로도>의 주요 주제는 성대한 공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의례를 집전하는 의식승도 의례의 절차와 효력도 시식단으로 인해 힘을 부여받았다(그림 2).

현존하는 감로도 중 시기가 올라가는 사례인 16세기 <감로도>를 살펴보면, 방형의 평상(平床)에 앉은 왕과 왕후를 시식단 앞에 비중 있게 표현했다(그림 9). 평상은 상례(喪禮)를 위한 의식 기물로, <감로도>에 도해된 인물이 국왕과 왕후의 영혼임을 나타낸다(그림 10).¹⁸ 16세기 일본 <코묘지 감로도>, 1590년 <사이쿄지 감로도>, 1591년 <쥬텐지 감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뒤편에 궁녀의 무리, 홀을 들고 통천관을 쓴 제왕형의 인물, 환관, 관리 등이 도해되기도 한다.¹⁹



그림 9 평상에 앉은 왕과 왕후, <그림 2>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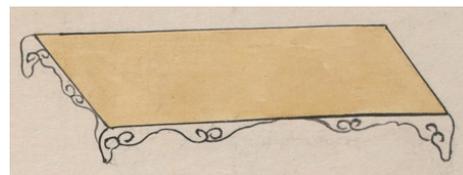


그림 10 영좌평상, 1718년, 『端懿嬪嬪宮都監儀軌』.

물론 수륙재 의식에는 역대 선왕과 왕후의 영혼이 초청된다. 의식집에는 세상을 떠난 제왕과 명군, 후비 등

18 의례의 기록을 보면 平床는 목록에 쓰는 것, 襲과 소림, 대령 때 쓰는 것 등 네 가지가 있다. 1474년 王命으로 『國朝五禮儀』가 편찬된 후 상례 부분만을 보충하여 간행된 『喪禮補編』 등에서도 등장하는데 구름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의 무리에서도 이들이 선왕, 선후의 靈魂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uigwe/>

19 감로도에 도해된 인물은 조선 초 수륙재를 지낼 때 왕이 疏文, 祝文을 내려 行香使(遊香使)를 파견한 기록과 관련하여 해석한 의견으로는 강우방, 「감로탱의 양식 변천과 도상 해석」, 『감로탱』(예경, 1995), p.350; 윤은희, 「감로왕도 도상의 형성 문제와 16, 17세기 감로왕도 연구: 수륙재 의례집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p.55; 박은경, 「16세기 水陸齋 불화, 감로도」, 『조선 전기 불화 연구』(시공사, 2008), pp.339~340. 천도 의식을 의뢰한 고위의 齋者로 본 견해로는 김승희, 앞 논문. 이러한 인물은 코묘지 감로도, 쥬텐지 감로도 등 16세기 감로도에서만 나타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회에 참석한 왕과 왕후로 현실의 인물로 보았다. 박은경, 앞 논문, p.348. 국행 수륙재를 집전하는 국왕 일행을 상징한다고 본 견해는 문명대, 「祖文필 1591년작 朝田寺藏 國行水陸齋用 甘露圖의 특징」, 『강좌미술사』 38(2012), pp.213~219.



그림 11 수록화에 도해진 선왕, 선후(往古后妃等衆, 往古帝王文武官僚等衆), 중국 하북성 석가장 비로사, 원대.

의 권속을 청한다는 의미의 항목(古今先亡 帝主明君 后妃 眷屬 并從眷屬)을 수록하며, 이 장면은 수록화에도 유사한 방제로 도해되었다(그림 11).²⁰ 그런데 중국의 수록화에서 왕과 왕후는 단지 수록재에 봉청되는 인물군 중 하나로 도해되었으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2).



그림 12 보녕사 수록화(往古帝王一切太子王子等), 1460~1464년, 118*61.5cm, 山西博物院.

이에 비해 16세기 <감로도>에 도해된 선왕, 선후는 단순히 의례집의 봉청 대상이 아니다. 조선 전기 불교 의례에서 왕실 인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수록재는 선왕, 선후의 기신재(忌辰齋)로 설행될 만큼 왕실의 주요 의례였다. 기신재란 기신도량(忌辰道場)으로도 불렸는데 선왕·선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찰에서 올리는 재이다.²¹ 기신재에 왕이 소(疏)와 향과 축문을 친히 절에 전하거나 어휘(御諱)로 소문(疏文)을 쓰는 것 등에 대해 국초부터 유신의 반발이 컸다.

중종 때 사림은 기신재의 절차가 예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였다. 선왕 선후의 위패를 밖에서 목욕시킨 후에 정로(正路)를 통하지 않고 험문으로 들어간다는 점, 부처 앞 뜰 하단(下壇)에 영단을 두고 영가를 뜰에서 일어났다가 앞드리게 하는 것이 마치 부처에게 절을 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부처에게 마치(摩旨)를 올리고 중에 대한 공양을 마치기를 기다려 신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왕의 혼령을 더럽히고 욕보이며, 예로써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기에 엄격히 금지해야 백성들의 음사를 금할 수 있다고 요청하였다.²²

왕실 기신재의 전통은 1516년 기신도량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 점차 유교적인 기신제로 행해졌다. 유생으로부터 반발로 국행 수록재 역시 중종 대에 폐지되지만, <감로도>에 재현된 선왕 선후의 도상을 보면 사찰 단위에서는 국가가 후원했던 불교 의례의 영향력이 남아있다. 왕실 후원의 의례용품은 이후에도 사찰에 내려져 후

20 원대 산서성 청룡사 비로전 수록화에는 ‘往古帝王文武官僚衆’, ‘往古后妃等衆’으로, 명대 산서성 공주사 수록화에는 ‘往古帝王龍子龍孫衆’이란 방제로 왕실과 종친을 나타냈다. 山西博物館, 『宝寧寺明代水陸画』, 文物出版社(1998); 연제영, 「儀禮的 觀點에서 甘露幀畫와 水陸畫의 內容 比較」, 『불교학연구』16(2007), pp.265~297.

21 조선 초 기록에는 사후 1년이 되는 기일의 재를 大祥齋로 2년째 되는 再期부터 기신재라고 한 경우도 있다. 조선 태종이 신덕왕후의 기신재를 흥천사에서 행한 이후 후대 왕들은 기신재를 중시하였다. 심호선, 「朝鮮前期 忌辰齋의 設行과 儀禮」, 『불교학보』 40(2003), pp.365~383.; 이현진, 「조선 왕실의 기신제 설행과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46(2008), pp.81~123.

22 조선시대 불교 의식은 상단, 중단, 하단의 三壇을 봉청하여 공양을 권하는 勸供과 施食이 의례의 핵심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 전기 仁粹大妃의 명에 의하여 1496년 승려 學祖가 국역한 『眞言勸供』에서부터 확인되며, 조선 후기 불교 의식의 기본 골격으로 유지되었다. 중종 대 이 기록에서 상단과 중단에 대한 시식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하단에 대한 시식을 올리는 삼단 의례가 조선 중기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왕 선후의 단은 하단에 해당하는데, 이는 유교적 예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유생의 반발을 확인할 수 있다. 정명희, 「朝鮮時代 主佛殿의 불화 배치와 기능: 三壇의 형성과 불화 봉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88(2015), pp.61~88.



속 의례에 사용되었고, 선왕과 조종의 영가를 천도하는 절차는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등 의식집에 종실단(宗室壇)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일체제왕, 명군 등을 모시는 종실단을 천왕문정(天王門庭)에 별도로 설치해 천도를 기원했다(그림 13).

花]이나 날아오르는 봉황을 뜨기도 하며 혹은 작은 바늘로 기꺼이 뚫고 혹은 자리를 펴며 기꺼이 따랐습니다.”²⁴

-「청평사에서 임금의 춘추를 축원하는 수륙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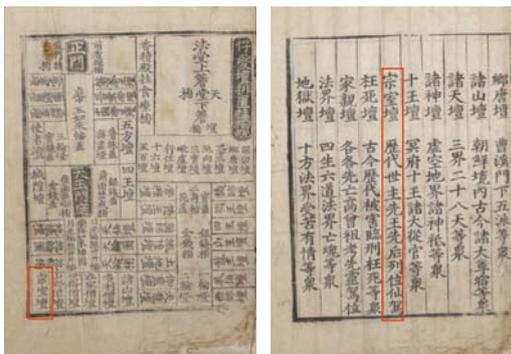


그림 13 의식집에 수록된 종실단(宗室壇),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1723년 간행.

수륙재는 살아있는 존재와 세상을 떠난 자, 성인과 범부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가장 뛰어난 의례로 인식되었다. 공의왕대비를 비롯해 군부인, 후궁, 상궁과 시녀가 불사를 위해 후원하고 동참했다. 당시 수륙재의 대시주자는 인종의 비였던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였다. 공양물을 시주하고 폐물 등 재화를 헌납하는 방법과 더불어 비단으로 만든 꽃과 봉황, 의식 도량에 사용되는 위의, 깃발, 불탁을 덮는 탁의 등 궁중 자수가 하사되었다.

조선 중기 대표적인 불교 후원자였던 문정왕후의 비호 하에 불사를 시행했던 나암 보우의 수륙재 개최 기록을 참고하겠다.²³



사진 2 왕실선가번(奉請文祖翼皇帝仙駕, 奉請神貞翼皇后仙駕), 1899~1902년, 범어사성보박물관.

“저승에 있건 이승에 있건, 성인(聖人)이나 범부(凡夫)이거나 다 같이 이익을 얻으려면 수륙재 만한 것이 없고 죽었거나 살아있는 원수나 친한 이로써 평등하게 공덕을 입으려면 명양(冥陽)의 훌륭한 범회보다 나은 것이 없다... 혼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여러 시주를 구했더니 공의왕대비가 큰 시주가 되고... 서원군부인(瑞原君夫人)이 조그만 상자의 재물을 기울여... 두 김씨 해, 징과 여러 상궁, 시녀들이 잇따라 백미를 따로 보내고 각각 앞을 다투어 귀중한 폐물을 주고... 혹은 금단(錦丹)의 비단 휘장(雲帷)을 마련하며, 어떤 이는 화룡(火龍)의 행기(行旗)를 수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수로 꽃[絲

조선 전기 <감로도>에 도해된 왕실 인물은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교단이 인식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드러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점차 이 도상은 사라지고 개인 상주와 재를 마련한 현실의 인물이 강조된다. 불교 의식집에서도 의식 진행에서 시주나 재주(齋主)의 역할을 별도로 구분해 놓아 이들의 존재를 좀 더 비중 있게

23 문정왕후의 불교 후원과 불화 제작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畫」, 『미술사학연구』 231(2001), pp.5~39; 신광희, 「朝鮮 前期 明宗代의 社會變動과 佛畫」, 『미술사학』 23(2009), pp.321~346; 김상현, 「문정왕후의 불교중흥정책」, 『한국불교학』 56(2010), pp.25~52.

24 ‘...竊聞幽明 聖凡普同而獲益 誠莫如水陸之殊科 死生冤親 平等而蒙勳 又無過吳陽之勝會 故致梁皇 感夢於神釋 秦主 求哀於英師 其爲利濟之無邊 肯以言意而有議 然獨辨其無力 乃兼募乎同仁 恭懿王大妃 作大檀信而圓應霞忱 若澄潭之印月 瑞原君夫人 傾小箱財 而密助雨願 如空谷之傳聲 由是二金氏 慧澄諸尙宮侍女 或別送白粒而追後 或各施貴玩而爭先 其有忠誠 皆發敬懇 或勤珠纓之寶結 或裁錦丹之雲帷 或繡火龍之行旗 或編絲花之飛鳳 或紉針而喜助 或展席而悅從 下既如斯 上奚殫樂 中宮與慈殿 茶葉及幣資 不圖而降助卑議 無慮而仰感至德...’ 나암 보우, 『淸平寺保上春秋水陸齋疏』, 『懶庵雜著』, 『한글대장경』, 동국대학교 역경원.

나타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왕실이 후원한 의례용품은 국가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사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불교 의례에 큰 권위를 부여하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범어사에 소장된 왕실선가본도 그러한 사례로,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로 22세로 사망한 효명세자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사진 2).

2. 불교 의례의 축제적 요소, 연희 장면의 재현



그림 14 <청룡사 감로도>, 1682년, 마본채색, 204*236cm, 보물1302호.

시식단 앞에 자리했던 역대 선왕의 도상은 17세기 이후 <감로도>에서 그 비중이 줄어든다. 물론 제왕의 도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1682년 <청룡사 감로도>, 1723년 <해인사 감로도>, 1728년 <쌍계사 감로도> 등에도 통천관이나 면류관을 쓴 왕의 도상이 도해되었다(그림 14). 그러나 전체 구성에서 비중은 줄어들며 도상도 유형화된다. 의식에 봉청되는 범계를 떠도는 망혼(亡魂)의 무리 중 선왕 선후의 그룹을 대표하는 맥락에서 도해된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역대 선왕의 도상이 갖는 의미가 줄어들며 17세기에 조선 사회가 경험한 전쟁의 기억, 현실의 불행한 죽음 장면으로 보다 확대된다.²⁵

<감로도>가 또 다른 시주자와 후원자를 창출해야 함에 따라 역대 선왕과 고금의 관리보다는 현실의 모습을 도해하는 데 주력하고 점차 재를 마련한 인물이 강조되었다(그림 15). 육도윤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의례를 마련할 수 있는 존재는 시식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재주(齋主)였다. 이들은 시식단 좌측에서 의식을 집전하는 승려의 영도 아래 간절한 기복을 담아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하단으로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놀이를 하는 무리가 그려진다는 점이다(그림 16).



그림 15 감로도에 묘사된 상주(喪主), <운주사 감로도>(세부), 1790년.



그림 16 <운흥사 감로도> 세부, 1730년, 견본채색, 244*253cm, 보물1302호, 쌍계사성보박물관.

조선 후기 전란 이후의 불교 의례에서 축제가 지닌 연희적 성격은 강화되었다.²⁶ 더 이상 왕실 인물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지고, 대중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전개

25 이경화, 「朝鮮時代 甘露幀畫의 下段畫의 風俗場面 考察」, 『미술사학연구』 220(1998), pp.79~107. 현실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감로도의 장면을 해석한 연구로는 이향순, 「감로도에 나타난 조선의 비구니 승가」, 『한국문화』 49집(2010), pp.51~72; 박은경, 「조선 16세기 감로도의 위난 이미지를 통해 본 사회상」, 『한국문화』 49(2010), pp.25~49; 김승희, 「19세기 감로도의 인물상에 보이는 새로운 양상」, 『한국문화』 49(2010), pp.99~121 등.

26 사당패, 솟대쟁이패, 풍각쟁이패 등 조선시대 다양한 유랑 예인 집단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감로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pp.282~287.; 전경옥, 「甘露幀에 묘사된 전통연희와 유랑예인집단」, 『공연문화연구』 20(2010), pp.163~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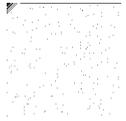


그림 17 보녕사 수륙화 (第五十八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 第五十七往古九流百家譜土藝術), 명1460~1464년경, 119*62.5cm, 山西博物院.

되면서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고, 이는 그림으로 시각화되었다. 군중이 밀집한 의례의 장소에서 신기한 기술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연희꾼은 감로도의 주요 장면으로 도해되었다.

중국의 수륙 의식집과 명대 수륙화에서도 연희의 장면은 나타난다. 의식집에 적힌 방제는 ‘해수악사(解愁樂士)’, ‘사무신녀(師巫神女)’, ‘산락령관(散樂伶官)’으로 ‘정해진 거처 없이 돌아다니며 근심을 풀어주는 이’, ‘귀신을 불러주는 일을 하는 이’를 뜻한다(그림 17). 그러나 수륙화에서 이들은 수륙재가 법계의 모든 영혼을 평등하게 천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봉정한 다양한 기예를 지닌 인물의 유형 중 하나이다.²⁷

이에 비해 <감로도>는 불교 의례가 있는 날, 실제 도량에 모인 현실의 인물을 재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장사 감로도>에는 근심을 풀어주는 악사, 우바새(優婆塞), 사무신녀가 모두 등장한다.²⁸ 거꾸로 물구나무서기, 줄타기와 같은 공중 놀이, 솟대놀이, 줄광대와 부채를 든 어릿광대,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춤추는 이들은 ‘사당패’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그림 18).

사당패는 각종 가무희(歌舞戲)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림 18 우바새(優婆塞)와 사무신녀(師巫神女),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도 세부.

유랑하던 예인 집단이었다. 신분상으로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들의 기예와 곡예는 인기가 높았다. 여성인 사당을 주축으로, 남성인 거사(居士) 또는 사장이 그룹을 이루어 수륙재를 지내는 등 승려와 유사한 활동을 하며, 불경 간행, 범당 중수, 범종 주조, 사적비 건립 등의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통치 계급인 유학자의 관점에서 이들은 혁파의 대상으로 기술되었다.²⁹

27 보녕사 수륙화에는 ‘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이라는 방제로 등장한다. 우측에는 창과 깃발을 든 인물이 있으며, 몸에 비늘이 꽂힌 인형을 쟁반 위에 받쳐 든 인물, 손에 불타오르는 기름과 장검을 든 무사, 박과 요령이 달린 검을 든 신녀, 방울 달린 북과 도끼를 든 무사 등이 도해된다. 陳俊吉, 『山西寶寧寺水陸道場繪畫研究』, (國立臺灣藝術大學 석사학위논문, 1997); 伸一野村, 『朝鮮時代の仏画にみる女性生活像』, 『慶應義塾大学日吉紀要』 30(2003), pp.63~102, 田中一成, 『明代の英雄劇と女性冤魂劇』, 『金泥大學中国語学中国文学教室紀要』 제1집, pp.37. 보녕사 수륙화는 139폭의 수륙화 중 십법계증신과 증생 136폭을 도해했다. 명대 천순년간인 1460년 전후에 그려져 청 강희 1705년과 1815년 중수되고 새로 장황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유수란, 『명·청대 寶寧寺 水陸畫의 후원자와 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8 우바새, 우바이는 연행자로 활동하는 거사배의 의미나 수륙재 등의 시주자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홍선표, 『조선시대 감로회도의 연희 이미지』, 『한국문화』 49(2010), pp.74~75. 김효정, 『18세기 감로탱 연희패 등장인물의 다면적 의미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권보나,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연희』, (서울대학교 음악과 석사학위논문, 2015).

29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2012); 진나라, 『조선 전기 社長の 성격과 기능: 불교 신앙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2(2004), pp.77~114.; 장휘주, 『사당패의 집단 성격과 공연 내용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음악연구』35(2004), pp.225~240.

행렬을 이루며 공연하는 사당패의 연희 장면은 1682년 <청룡사 감로도>에서부터 나타나 18세기 <감로도>에 광범위하게 도해되었다. <리움 소장 감로도>에는 남사당패와 유사한 연희패를 묘사했는데, 쌍줄백이·방울처 올리기와 같은 공연과 더불어 작은 인형극의 무대도 도해되었다. 피리를 불거나 거꾸로 서는 곡예를 하는 어름산이 역시 화승 의검이 그린 <운흥사 감로도> 이후 반복되어 나타난다.³⁰

조선 전기 불교 의례가 '위험한 축제'였다면, 17세기 이후 시각화된 불교 의례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위험성과 해괴함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집기를 처분하고, 불화를 그리는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강나루가 막히고 도성이 텅텅 비도록 모여든 사람들의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되었음을 반증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 전란을 겪은 후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역병이나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시기, 갑작스런 죽음을 겪은 사회를 다시 통합하기 위해 대규모의 천도재(薦度齋)가 개최되었다. 불화와 장엄구로 꾸며진 공간에서 선행된 불교 의례는 불행한 죽음을 맞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이와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교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IV. 맺음말

전통 사회에서 불교 의례는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축제의 장에는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위구와 장엄구, 불교 회화가 사용되었고,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하나의 종합 예술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교적 질서를 체계화하고자 했던 조선 전기 유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고, 의례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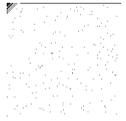
용된 시각 매체는 지탄받았다.

도량의 모든 공간이 의식에 사용되고 다양한 시각 매체가 의식단에 갖춰졌지만, 그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의식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전각 안에 봉안되는 예배화로서 뿐 아니라 현실의 도량에 강렬한 불보살과 이상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게 되었다. 시각 이미지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녔기에 불교 교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의례 공간에서 진행되던 제의의 핵심적인 내용과 체계는 <감로도>에 반영되었다. 특히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실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 의식집에서는 단지 수륙제에 봉청되는 존귀한 대상 중 하나로 도해되었을 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던 인물이 <감로도>에서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제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되었다. 교단의 입장에서 왕실 후원은 의례의 사회적 공인과 같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조선 후기 의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의식집과 의례를 도상화한 불화에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는 의례 공간은 살아있는 자와 세상을 떠난 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음악과 춤, 현대의 공연에 버금가는 작법이 행해졌다. 17세기 이후의 <감로도>에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연희의 무대를 만드는 당시 의례의 현상이 반영되었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도 불교 의례는 기층민에게 환영받았고, 점차 하나의 정례적인 세시 풍속이나 축제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30 17세기 중반 이후 사당패는 엽불이나 재를 대신해주는 활동으로 시주를 모으고 사찰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예능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운흥사 감로도에는 세시 풍속이 된 백중 놀이의 여러 모습이 도해되었다. 배도식, 『밀양 백중놀이』,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일보사, 2004), pp.459-504.



참고문헌

- 박세민,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보경문화사, 1993
- 나암 보우, 『懶庵雜著』 (『한글대장경』, 동국대학교 역경원)
- 노명호·서성호·이익주 저,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 의례』, 문학과지성사, 2001
-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2012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 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 山西博物館, 『宝寧寺明代水陸畫』, 文物出版社, 1998

- 강우방, 「감로탱의 양식 변천과 도상 해석」, 『감로탱』 (예경, 1995)
- 강호선,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 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59(2015)
- 권보나, 「감로탱에 나타난 사당패 연희」, 서울대학교 음악과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상현, 「문정왕후의 불교중흥정책」, 『한국불교학』 56(2010), pp.25~52.
- 김수연, 「고려시대 佛頂道場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승희, 「감로도에 보이는 공양물의 내용과 그 의미: 보석사 감로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27(2013.8), pp.289~319.
- 김승희, 「19세기 감로도의 인물상에 보이는 새로운 양상」, 『한국문화』 49(2010), pp.99~121
- 김승희, 「한국 불교 회화의 판타지: 감로도의 아귀상」, 『미술사학보』 50(2018), 미술사학연구회, pp.7~29
- 김정희, 「朝鮮前期의 地藏菩薩圖」, 『강좌미술사』4(1992), pp.79~118
-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畫」, 『미술사학연구』 231(2001), pp.5~39
- 김정희,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敎美術: 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의 佛事」, 『미술사논단』 25(2007.12), pp.107~150
- 김정희, 「감로도 도상의 기원과 전개: 연구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47(2016), pp.143~181
-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 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효정, 「18세기 감로탱 연희패 등장 의 다면적 의미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니운호, 「朝鮮後期 佛敎 牌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문명대, 「祖文필 1591년작 朝田寺藏 國行水陸齋用 甘露圖의 특징」, 『강좌미술사』 38(2012), pp.213~219
- 박도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의 圖像 형성과정: 불교 경전 形像의 한 패러다임」, 『미술사학보』 23(2004), pp.111~154
- 박도화, 「의미와 유형으로 본 變相의 分化」, 『미술사학연구』 277(2013), pp.41~67
- 박은경, 「李朝前期 佛敎의 研究-地藏菩薩圖像을 中心に」, 九州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1993
- 박은경, 「조선 16세기 감로도의 위난 이미지를 통해 본 사회상」, 『한국문화』 49(2010). pp.25~49
- 배도식, 「밀양 백중놀이」,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일보사, 2004), pp.459~504

참고문헌

- 백은정, 「知恩院 소장 조선 전기 地藏十王18地獄圖 연구」, 『미술사학』 27(2013), pp.131~161.
- 신광희, 「朝鮮 前期 明宗代의 社會變動과 佛畫」, 『미술사학』 23(2009), pp.321~346
- 심호섭,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동국사학』 40(2004), pp.219~246
- 심호섭, 「朝鮮前期 忌晨齋의 設行과 儀禮」, 『불교학보』 40(2003), pp.365~383
- 연제영, 「儀禮의 관점에서 甘露幀畫와 水陸畫의 內容 비교」, 『불교학연구』 16(2007), pp.265~297
- 유수란, 「명·청대 寶寧寺 水陸畫의 후원자와 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윤은희, 「감로왕도 도상의 형성 문제와 16, 17세기 감로왕도 연구: 수록재 의궤집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경화, 「朝鮮時代 甘露幀畫의 下段畫의 風俗場面 考察」, 『미술사학연구』 220(1998), pp.79~107
- 이향순, 「감로도에 나타난 조선의 비구니 승가」, 『한국문화』 49집(2010), pp.51~72
- 이현진, 「조선 왕실의 기신제 실행과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46(2008), pp.81~123
- 장취주, 「사당패의 집단성격과 공연내용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음악연구』 35(2004), pp.225~240
- 전경옥, 「甘露幀에 묘사된 전통연희와 유랑 예인 집단」, 『공연문화연구』 20(2010), pp.163~212
- 정명희, 「朝鮮時代 主佛殿의 불화 배치와 기능: 三壇의 형성과 불화 봉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88(2015), pp.61~88
- 정명희, 「조선시대 水陸齋의 성행과 새로운 불화의 수요: 四直使者圖와 五方五帝位圖」, 『불교미술사학』 21(2016), pp.81~112
- 정명희, 「조선시대 불교의식과 승려의 소임분화: 감로도와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31(2016), pp.253~291
- 정우택, 「朝鮮王朝時代 前期 宮廷畫風 佛畫의 研究」, 『미술사학』 13(1999), pp.129~166.
- 제송희, 「조선 왕실의 가마[輦輿] 연구」, 『한국문화』 75(2015), pp.259~298
- 진나라, 「조선전기 社長의 성격과 기능: 불교 신앙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2(2004), pp.77~114
- 최응천, 「佛影寺 소장 佛輦과 佛殿牌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28(2017), pp.245~273
-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27(2003), pp.29~57
- 한상길, 「조선전기 수록재 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23(2009), pp.671~710
- 허상호, 「불교 의례의 佛具와 그 用法」, 『문화사학』 31(2009), pp.179~220
- 홍선표, 「조선시대 감로회도의 연희 이미지」, 『한국문화』 49(2010), pp.74~75

- 陳俊吉, 「山西寶寧寺水陸道場繪畫研究」, 國立臺灣藝術大學 석사학위논문, 1997
- 伸一野村, 「朝鮮時代の仏画にみる女性生活像」, 『慶應義塾大学日吉紀要』 30(2003), pp.63~102



The Joseon Confucian Ruling Class's Records and Visual Media of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during the Fif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Myounghee Jeong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shine22@korea.kr

Abstract

The Confucian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regarded Buddhist rituals as “dangerous festivals.” However, these Buddhist ceremonies facilitated transitions between phases of life from birth till death and strengthened communal unity through their joint practice of the rites.

Ritual spaces were decorated with various utensils and objects that transformed them into wondrous arenas. Of these ornaments, Buddhist paintings served as the most effective visual medium for educating the common people. As an example, a painting of the Ten Kings of the Underworld (*siwangdo*) could be hung as a means to illustrate the Buddhist view of the afterlife, embedded in images not only inside a Buddhist temple hall, but in any space where a Buddhist ritual was being held. Demand for Buddhist paintings rose considerably with their use in ritual spaces.

Nectar ritual paintings (*gamnodo*), including scenes of appeasement rites for the souls of the deceased, emphasized depictions of royal family members and their royal relatives. In Chinese paintings of the water and land ceremony (*suryukjae*), these figures referred to one of several sacred groups who invited deities to a ritual. However, in Korean paintings of a nectar ritual, the iconography symbolized the patronage of the royal court and underlined the historicity and tradition of nationally conducted water and land ceremonies. This royal patronage implied the social and governmental sanction of Buddhist rituals. By including depictions of royal family members and their royal relatives, Joseon Buddhist paintings highlighted this approval.

The Joseon ruling class outwardly feared that Buddhist rituals might undermine observance of Confucian proprieties and lead to a corruption of public morals, since monks and laymen, men and women, and people of all ranks mingled within the ritual spaces. The concern of the ruling class wa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nature of festivals, which involved deviation from the routines of daily life and violation of taboos. Since visual media such as paintings were considered to hold a special power, some members of the ruling class attempted to exploit this power, while others were apprehensive of the risks they entailed. According to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Joseon royal court burned Buddhist paintings and ordered the arrest of those who created them, while emphasizing their dangers. It further announced that so many citizens were gathering in Buddhist ritual spaces that the capital city was being left vacant. However, this record also paradoxically suggests that Buddhist

rituals were widely considered festivals that people should participate in.

Buddhist rituals could not be easily suppressed since they performed important religious functions reflecting the phases of the human life cycle, and had no available Confucian replacements. Their festive nature, unifying communities, expanded significantly at the time. The nectar ritual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period realistically delineated nectar rituals and depicted the troops of traveling actors and performers that began to emerge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Such Buddhist rituals for consoling souls who encountered an unfortunate death were held annually and evolved into festivals during which the Joseon people relieved their everyday fatigue and refreshed themselves. The process of adopting Buddhist rituals—regarded as “dangerous festivals” due to political suppression of Buddhism in the Confucian nation—as seasonal customs and communal feasts is well reflected in the changes made in Buddhist paintings.

Keywords Buddhist Ritual, Festival,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Siwangdo* (painting of the Ten Kings of the Underworld), *Gammodo* (nectar ritual painting)

Received 2019. 12. 31 • Revised 2020. 01. 21 • Accepted 2020. 02. 10

